



Occasional Paper Series

08-03

Europe's Slow Growth: A Warning for Korea

유럽의 경제침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Guy Sorman

August 2008

세계경제연구원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Guy Sorman

- 문명비평가이자 작가 겸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며 수많은 저서를 통해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프랑스의 대표 지성인.
- 프랑스 총리 자문위원장 역임. Stanford대, Beijing대, Moscow대, Paris대 등의 교수로도 활동하였음.
- “Economics Don’t Lie”, “The Empire of Lies”, “Made in USA” 등 저서 다수.

요 약

2차 대전 이후 서유럽은 전후 복구 작업과 미국 따라잡기에 주력하고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 말과 1970년대에 들어서는 미국처럼 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경제모델이라는 일반적인 통념이 자리 잡게 되었다. 즉 일종의 중앙집권적 계획과 특정부문에 대한 대규모 공공투자를 통해 국가가 더 나은 지배력을 구사하는 것이 더 훌륭한 모델이라는 것이다. 그 결과 복지국가 체제는 미국보다 서유럽이 더욱 발달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은 1980년대에 세계화라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면서 사라졌다. 세계화가 나타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는 구소련이 붕괴하기 시작하면서 두 개의 경제체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자유시장이라 하나의 체제만 남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기술변화, 특히 인터넷으로 인해 통신과 교환이 즉석에서 이루어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통신, 정보, 자본의 측면에서 진정한 세계시장이 처음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1980년대 초 미국은 세계가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고 있음을 이해한 것 같다. 미국은 국가의 역할 축소, 자유무역 증가, 경쟁 확대가 이루어졌으며 기업가에게는 보다 많은 자유가 부여되었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유지되도록 했다. 그러나 영국과 아일랜드를 제외한 유럽 국가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했거나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다. 오히려 서유럽은 경제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도 기존 체제가 더 나은 것으로 보고 이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성장이 둔화되고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태에서 복지국가를 유지하려면 세금을 인상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1980년대 초 서유럽에서는 세금이 증가하고 규제가 늘어났으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줄어들었다. 10년 넘게 0%의 성장률을 기록함으로써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이라 일컬었던 일본의 상황은 유럽과 비슷하나,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볼 때 유럽보다도 더 나빠 보인다.

유럽 중에서 영국과 아일랜드는 상이한 경로에 있다. 이들 양국은 1970년대 말의 상황이 매우 절망적이었던 관계로 미국 쪽에 훨씬 가까운 경로를 택하여 크게 성공적인 상태이다. 아일랜드는 한때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지만 지금은 부유한 나라에 속하며, 아시다시피 런던은 세계 금융중심지이다.

1991년 이래 빈곤과 사회주의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동유럽 지역의 경우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등의 나라들은 미국의 자유시장 방식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 결과가 매우 좋다. 그들은 자유로운 기업가 정신을 확실하게 선택하여 통제경제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부정하고, 거의 모든 것을 민영화함으로써 급속히 서유럽을 따라잡으며 눈부신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는 이념과 자유시장 정책 양쪽 모두의 성공이다.

서유럽의 저성장을 설명함에 있어서 자주 거론되지 않는 한 가지 요인은 일을 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1980년대 초 일본도 같은 결정을 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에드워드 프레스캣 교수의 이론에 의하면 각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기술과 경영기법, 서비스는 모두 같다고 한다. 그렇다면 국가 간 성장률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그것은 노동시간의 수에서 온다. 하지만 이러한 점이 명료하게 설명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가장 큰 오류 중 하나는 생산성 증가가 근로시간 상실을 보전한다는 생각인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웃국가보다 높은 생산성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 일본, 프랑스, 미국 등의 생산성을 비교해보면 거의 동일하다. 그러므로 기본적인 차이는 근로시간 수에서 나타난다.

한국 경제가 안정단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한국의 성장을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있다. 즉 성숙된 경제에서는 성장률이 초기보다 훨씬 둔화된다는 것이다.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한국을 앞서가는 선도국가가 있는 한 따라잡을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경쟁 때문이라는 주장 역시 옳지 않다. 프랑스 제품이 중국 제품 등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은 경쟁 때문이 아니다. 경쟁은 시장 규모를 확대시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세계시장의 규모는 더 커진 상태이다. 그러므로 성장둔화는 치열해진 경쟁 때문이 아니라 규모가 커지고 있는 세계시장에서 충분히 경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성장의 핵심요소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며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책 매개변수이다. 이는 본질적으로 시행하기가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노동시장 유연성에 관심 없는 사람들과 정치적 투쟁을 해야 하는데, 그 대상이 기득권 내부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기득권 밖의 젊은 사람들도 자신이 그러한 시스템의 희생자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고자 하는 집단을 결코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철저히 보호받고 있는 일자리를

가진 기득권자들은 현상유지를 위해 목소리를 극도로 높일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시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담화의 내용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한국이 경제성장을 회복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또 다른 두 가지 요인이 있다. 하나는 교육이다.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더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수용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고등학교의 기본교육, 기술학교, 대학교육이 노동시장 유연성을 실천하는 관건이다. 두 번째는 한국의 이미지이다. 한국 문화가 해외에 잘 알려져 있지 않아 한국의 이미지가 매우 취약하다. 국가의 이미지는 모종의 경제적 결과를 가져다준다. 향수는 프랑스, 고급자동차는 독일, 전자용품은 일본을 떠올리는 것처럼, 세계시장의 소비자들이 한국산이기 때문에 한국 제품을 구매하도록 문화적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한국의 이미지를 구축해야 한다.

Europe's Slow Growth: A Warning for Korea*

Guy Sorman

It's a pleasure to be here again. I am full of admiration for the capacity of the Korean people to get up so early in the morning. I know of no other country where you could fill a room at 7 o' clock. In France we would have to start at around 10 or 10:30.

Last year I talked about the US economy with much confidence and if I was to repeat the same argument I would not change much. I don't consider the crisis in the US banking system to be superficial, it has deep impact but it has no impact on the US economy as such. It does slow growth but there has been no recession and it does not seem like there will be a recession. Therefore it can be considered as an accident in the system, it is not an accident of the system. Many people are disappointed because they would love to see the US economy fail and they would even more love to see capitalism disappear. But it is still not the case. On the contrary it seems to be that in spite of the awful mismanagement of the American financial system, the US economy and the global economy has been quite resilient and has been able to absorb the shock of this mismanagement. In a paradoxical way, I would say that this financial mismanagement proved the resilience of the American system and the American economy. I don't think the future months or years will change my perspective. Of course accidents and crises do occur. But as I explained a year ago, crises are in the system and no more of the system. It is one of the arguments that is in my book *Economics Don't Lie*.

Shifting from the United States to Europe and slow growth in Europe, what

* Transcription of a speech given at the IGE Distinguished Lecture Forum on Wednesday, May 14, 2008

we can learn from that, and what Korea can learn from that? Everything is of course inter-connected. Since the late 19th Century, the US economy is the leading economy. The US is the leader in terms of growth, innovation, and not just technical innovation but in management innovation. And in any system you have a leader during any period, before that the leader was the United Kingdom.

Since the last century, all the other countries are trying to catch up with the United States economy. Maybe some day another economy will catch up with the United States and take over and the world will have a new leader. But so far that is not the case because all the countries trying to catch up with the US be it Western Europe to start with or Asia or India, Brazil, Latin America are all adopting the macroeconomic policies of the US, as well as microeconomics, management and technical innovation. We do not see any micro or macroeconomic policy, management and technical innovation which would be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what has been created in the US. This is a fact, I don't say we have to like it or not like it but it is a fact of life. There is no Chinese way, no Indian way, no Korean way to build a car, cell phone or manage a company or bank. You can do better than the US or you can do less than the US but basically we are all following the guidelines which have been defined in the US.

Now if we focus on Western Europe. What has been very remarkable about Western Europe was that after World War II there was a gigantic effort for reconstruction and then an effort to catch up with the United States. And when we look at Europe in the 1960s and 1970s, all Western European countries were catching up with the US. In 1950s for example, the income of people in Germany or France was half of what it was in the United States. In the late 70s it was 80% of what it wa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same "catching-up" phenomenon was happening in Japan. Then new countries joined the race like South Korea, Hong Kong, Taiwan and Singapore.

So the conventional wisdom in the late 60s and 70s are the economic models who were not the United States were better. It was better because it

gave more importance to state regulation. It was more directed by the state with some kind of planning and the heavy public investment in some sectors like in France and South Korea or Japan. And also the welfare state which certainly in the case of Western Europe that was more developed than the United States. At that time the common wisdom was that United States was losing the race and that Europe and maybe Japan were creating a new model.

This kind of reflection disappeared in the early 1980s. In the early 80s a new phenomenon appeared that was globalization. Why? For two simple reasons. First the Soviet Union started to disappear and it became evident that there were no more two economic systems but only one which was the free market system. The other competitor had just vanished. The second reason was because of technical changes and specifically because of the Internet, communications and exchanges became instantaneous. And we had for the first time a real global market in terms of communications, information and capital. It appeared that in early 1980s the US understood that the world was entering a new period. Japan and Western Europe did not understand really what was going on. Many changes that had been implemented in the United States and later on by Margaret Thatcher in the UK took into consideration the new parameters of this new economic world. Specifically, the state had to be reduced, free trade had to be increased and competition being everywhere more liberty was to be given to entrepreneurship and the labor market had to be kept flexible. Destructive Creation, a concept you know and I explained last time, the capacity to shift rapidly from one sector to another because of foreign or domestic competition. Destructive Creation was the key for success. This was not understood or was not accepted by Europe except the UK and Ireland. On the contrary, Western Europe decided to keep the system they had before that they saw as better not only in economic terms but also social terms.

This is what has happened in the early 1980s in Western Europe, taxes have been raised, state regulation has been increased, the welfare state has been reinforced, and labor flexibility has been diminished. Why have all

these decisions been made? They have been made because when growth goes down, you have less money, therefore in order to keep the welfare state running and also with a population becoming older and older, you had to raise taxes in order to finance your welfare state.

So what happened in early 1980s was a battle to keep the welfare state the way it is or limiting the welfare system, introducing competition in the insurance system and retirement system in order to give more liberty to entrepreneurship. Only the UK and Ireland took, let's say, the American way. All the other countries kept all things going the same and even increased the rigidity of the economic system. And it is not well understood, even in Western Europe, why taxes increased during that period. The very rapid increase in that period is as a consequence of slow growth. If you have slow growth you have to increase taxes in order to protect the welfare state.

We can wonder why these decisions have been made in Western Europe and one thing is very clear. In the early 80s in continental Europe, mostly France, Germany, Italy, we have very slow growth between 1% and 2%. The demography is still increasing between 1% and 2%. The real growth rate is 0% for more than twenty years. Why do we go on like that? Because in this kind of stagnation you have winners and losers, therefore you must understand the economic choice for political reasons.

The majority of the people in Western Europe are rather old, they have a job or they are retired or they are civil servants. So for them the system is quite good, there is no disruption in their life. To look at France, 25% of the people work for the public system in the public services or public company. Most of the people who retire depend on the state system. So the vested interest of the older people or the civil servants is the status quo. To change a system, a government would need to rely on the outsiders, young people, immigrants, people without education, young entrepreneurs, these people who have a vested interest in changing the system are a minority.

If we shift for one moment from Western Europe to Japan. The situation in

Japan is very similar. If you look at what Japanese economists call the “lost decade”, 0% growth for more than ten years, the “lost decade” in Japan has been a collective choice even if it has never been promoted as such. What happened in Japan? Basically older people became a majority. And many companies with the help of banks could go along without any consequences even if they were losing money, the so-called “ghost companies”. The “ghost companies”, their employees and the public sector, let’s remember the postal service in Japan, the retired people altogether were the insiders like in Europe. They had a political vested interest in maintaining the system even if it meant only 0% growth. 0% growth was more comfortable than changing and disrupting the system. And in Japan like in Western Europe today, I think it is worse in Japan because of the demographic, you don’t have much support for making the Japanese economy, like the Western economy, more dynamic than it is. This is not normally explained to the people in that way, you have quite a contradiction between economic reality and political reality. Nobody in Western Europe or in Japan is running for office promising stagnation, they all promise growth but they never include in the program the destructive reforms that would bring back growth on its former track.

When we talk about Western Europe or Europe in general we have to get into some distinctions. As I said before UK and Ireland are on a different path and much closer for cultural reasons and because the situation was very desperate in the late 70s, they have chosen a path much closer to the US and they have been extremely successful. Ireland was once one of the poorest countries in Europe is now among one of the richest and London as we know is the financial capital of the world.

We also have to look at the eastern part of Europe which since 1991 wanted to get out of poverty and socialism. Therefore countries like Poland, Hungary, Czech Republic and Slovakia were prepared to accept the free market method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results proved to be very good. If we remember what was told about these countries in 1990s, most columnists said that they would need 50 years to catch up with the rest of

Europe. This is not the case. They have proven that by rejecting a state economy, central planning by choosing clearly free entrepreneurship, by privatizing nearly everything that they are catching up very rapidly and it is a huge success. Which are altogether an ideological success and a success of free market policy.

Now I want to mention one factor that is not often mentioned, which explains the slow growth of Western Europe, once again basically France, Germany and Italy. We have decided to work less. The same decision was made by Japan in the early 1980s. In the early 1980s, the Japanese government decided that they were working too hard and that they should take long weekends. Public services and banks were closed on Saturdays. A similar decision was taken in Germany and France where since 1983 it is legally forbidden to work more than 35 hours a week.

Therefore if you look at all the economic parameters, and I refer to work of Edward Prescott who won the Nobel-prize two years ago. Prescott showed that after all, what you produce in Korea, Japan, France and in the United States is the same, we produce cars, cell phones and we have the same kind of services. We are not really different, management is the same, and techniques are the same. When a technique is invented somewhere in the next week or year it will be used everywhere. You visit a car factory in France or Korea or Japan it is basically the same. So where does the difference in growth rate comes from? It comes in the quantity of work, the parameter that explains the difference in growth rate is basically the number of hours worked globally by a nation. This is difficult to understand and convey. I was yesterday night explaining that to a journalist in Seoul and he said, "I work a lot". I said, "Of course you work a lot as an individual." But economists don't speak about individuals, we speak globally about a nation. And in South Korea, like in all the countries which have been mentioned, the quantity of work globally invested into the nation has been progressively reduced. And as a consequence of the reduction, the growth rate went down. It is pure arithmetic, it is very simple to prove but it is very difficult to transmit in the political discourse, people are not willing to accept that very easily.

So what can be done? What is to be done is to explain what is going on in many countries where growth is slowing and the catch up process with the United States has stopped?

To give you a figure, Italy in 1950 had a per capita income which was 50% of the US, even 40%, in late 1970s it was 80%, tremendous success. Now it is 65%. So it went down, brutally. Why? Because they stopped working. Is it a choice? Yes, it is a collective choice. But it is not explicitly said like that. And one of the big mistakes is to think that by gain of productivity you will compensate the loss of hours worked. This is not true. Because you cannot gain more productivity than the guy next door. The productivity will be the same. Basically if you compare the productivity in Korea, Japan France and the US it is more or less the same, same technique. So the difference is basically in the quantity of work. If you want to get over it, if you want in the case of Korea to regain a higher growth rate, is it possible or not?

There is one line of argument which says it is not possible because the Korean economy has reached a certain plateau, a certain kind of maturity and in a mature economy the growth rate becomes much slower than in the initial period. This is not completely true, because as long as you are behind the leader there is room to catch up. The rational saying that we are mature therefore we stop growing, this would work only if the production of Korea, the accumulated wealth of Korea was the equivalent of the accumulated wealth of the Americans. It is not the case. You are still far behind. The argument of maturity is not a valid economic argument. It just does not play. The other argument which is competition is also not a valid argument. Competition is not replacing French goods with Chinese goods or whatever. It is increasing the size of the market. What we have now is an increased size of the global market, therefore you do not have slow growth because of more competition, you have slow growth because you are not competing enough in the global market which size is increasing. Therefore these two arguments are economically non-relevant. If you get rid of these two arguments you get back to what works and what should work for Europe as in the case of Korea. I won't mention the free market agenda, we all know

by heart what free market means, what competition means, we all know what destructive creation means. There is no need to elaborate on that.

The key factors are of course, first labor market flexibility. Labor market flexibility is an absolute essential parameter. It is essential and it is extremely difficult to implement because there you are in a political fight against people who are not interested in labor market flexibility. You are confronted with the insiders not the outsiders. The outsiders, the younger people who are looking for a job will never support you because they don't know they are victim of the system. The insiders who already have a well-protected job will be extremely vocal. Therefore in order to promote a free market policy, the quality of the political discourse is absolutely essential. If a political leader is not able to explain why he is promoting a free market economy he will not go far. If we remember Ronald Reagan, Margaret Thatcher, Helmut Kohl in their respective countries or even Gerhard Schroeder, a so-called "socialist", in Germany have all been extremely good to ensure that free market policy and labor market flexibility would benefit the outsiders. They would always quote the poor guy out there without a job and show that this poor guy out there without a job would be the first one to be a beneficiary of this free market policy. Therefore explanation and the quality of explanation and the way to convey this message is key. If I may mention the case of France, so far the French President has been unable to convey this message and the problem in this weakness to convey this message has been the reason why the reforms promised in his platform have not been able to be implemented so far.

I will mention two other factors that are extremely important for a high growth economy. Education, everybody talks about education. Education has two virtues. The first one, the more educated the people are, the more they are willing to accept labor market flexibility. It is the uneducated people or the people with poor education who are unable to cope with the flexibility of the labor market. Basic education at the high school level, technical school and college level is the key to implementing this flexibility. To remain in the domain of education, it seems to me that having visited

many universities in Korea they are still very much behind what would be expected of a country like South Korea. It is a very conservative education. It is not very much open to the rest of the world, very few foreign students and very few foreign faculties. So I am not sure if South Korean universities are geared for high growth. This is compensated by the fact that many Korean students go to study abroad, but in those cases they remain abroad. Therefore I think one of the keys for high growth, as I said before, is basic education for labor flexibility and higher education to promote innovation in a more competitive world. This seems to me some of the weaknesses of Korea.

Also eventually and I don't want to elaborate too much as I have already spoken many times about this. I always consider for many years that Korea is not using its civilization as an economic asset. Korean civilization is not well known abroad and the image of Korea is very weak and I think this has some economic consequences. To tell things in a simple way and I have often repeated, if you buy a perfume, you will tend to buy a French perfume because this is the image of France, if you want a very costly car, you will buy a German car because this is the image of Germany, if you want to buy a very stylish electronic gear, you will buy something Japanese. By the way, most of French consumers think that Samsung is a Japanese company because it fits with the image of Japan. Samsung knows this, I asked them why they did not try to promote it as a Korean product, they said no, we would lose consumers, it is much better for us if they think they are buying Japanese.

So the image of Korea is very weak, so you lack what I call a "cultural-added value". And I think if you were able by a systematic public relations and advertising policy, I won't get into the details of that, you would promote Korea as a brand. The consumers in the global market would be attracted to Korean products because they are Korean. I don't know of any consumers who are buying products because it is Korean, they don't. That is because the image of Korea is so weak. Therefore one of the many parameters on which Korea could work, the macroeconomic parameters that keep the free

market going, have a labor market flexibility, encourage creative destruction, favor education to facilitate flexibility, have better universities geared to the world so that you have innovation and promote Korea as a brand in order to give you added value to Korean products.

These are some of the elements that I think will help Korea to reconnect with high growth. And high growth can be reached because you are not at the top of the curve. You are still on the learning curve and for some years to go.

Thank you.

Questions & Answers

Q Thank you Mr. Sorman for your excellent speech. The world is wondering what is happening with the economy, whether the US is in a recession or is going into a recession or about. The ultimate judge, the official judge is th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hich has to wait until time goes by to say whether it was in a recession or not. What is your sense of the US, you seem to be more optimistic about the impact of the crisis on the US. US leadership is dependent upon the financial services being the forefront of the world. That right now is very much on the question, there is some question about whether people understand what is going on right now and there will be some time of regrouping. I would like to hear your opinion on that.

A It is a one billion dollar question. I noticed that since the crisis started everyone is talking about a recession. What we have in the United States for more than two quarters is slow growth of less than 1%. But we don't have negative growth, so technically we should talk about slow growth not recession. And also the job market has not really been impacted by the slow growth. Suddenly some people are not being paid well but the level of unemployment is very low, inflation is under control which is very important

for future because if not it would be a threat for future investment. What was feared was the credit crunch, small companies would not be able to borrow because the banks would not lend to them, the credit crunch did not happen.

So, so far the worst has been avoided, the US economy is still growing and the fundamentals have not been affected. Why is this? I think one of the reasons has been that the crisis has been well managed and the US authorities, the treasury, have learnt from past crisis. The good thing about economics is that you make mistakes but that you learn from your mistakes. The two major mistakes that could have been committed and that had been committed in 1930s and 1970s. In the 1930s it was to close the border and to have a protectionist economy that aggravated the crisis for 10 years. There has been consensus that the 1930s crisis was severe but became a disaster because of the mistaken intervention of the central bank and government. In this case it was very clear that the Government and the Treasury would not go for protectionism and would not go for regulation but considered that capitalism would cure itself spontaneously.

Another mistake, which has not been done, was the one made in 70s when the Keynesian policies were implemented for the first time and there was a tremendous increase of money from the central reserve system and the consequence was that the United States developed a new term "stagflation" (stagnation plus inflation). This mistake has not been committed again.

So far one of the reasons why the crisis in the system has not brought about more severely has been because of good management. And good management that has been based upon the knowledge that has been accumulated during the two former crises. And the two same scientific lessons have been absorbed by all the other economies and central banks around and there is a kind of coordination to a certain limit by all the major players, the central banks in Asia and Europe with the United States. This is why it is under control.

However there is a risk about the lack of credit which could impact the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The question is whether the US will accept the Sovereign Wealth Funds to invest in the US economy. And someone will have to answer this question. Will the US and Europe accept Sovereign Wealth Funds from China, Kuwait and Russia? I think they will because these funds are needed financially and because the risks are limited. If Sovereign Wealth Funds are invested in your country, in your industry, they are part of your system. If you remember the debate in 1980s when Japanese companies were taking over real estate in New York and California. The Americans said it is not possible, we cannot sell the Rockefeller Center to the Japanese. But they were not able to take the Rockefeller Center back to Japan with them. It is the same case now. So sooner or later the Sovereign Wealth Funds will be invested not only in treasury bonds but they will be invested in the real US economy and will be one of the long-term consequences of the US Subprime mortgage crisis.

Q This question is not directly related to your lecture, but do you think that the EU as an organization is suffering from “democratic deficit”, if so does it have any impact in the economic area?

A Well, I’m sure students in the EU know what “democratic deficit” is in the EU but I am not sure that members of the EU know what it is, it is kind of a code word. It means that the key decisions are made by the commission in the EU and the commission is basically elected by nobody. So it is considered basically as not being very democratic. But the commission maybe is not elected, the commission members are selected by the governments but they are acting within the European constitution. Therefore they have a very clear mandate, so I don’t think that we have a “democratic deficit” because the commission does respect the mandate that it receives from the European constitution.

Also I would like to add something on the European Union. The EU has been built up as a free trade organization in order to erase war from Europe. The starting point of the European Union was how to get rid of war from

Europe after one thousand years of wars. The answer was free trade. So the purpose of the EU is free trade. So all the decisions taken in Brussels is made to help free trade. If you want to have free trade you need to eliminate regulation or have common regulation, you need to eliminate state subsidies and you need to have a common currency. And Europe as a free trade zone has been a tremendous success, not only economically but also diplomatically because you have no more wars in Europe. People tend to forget that this was the purpose of Europe.

So now as some politicians and scholars say what is next, why don't we use Europe to counter the influence of US, why don't we build a strong European army, have European diplomacy. But this was not the purpose of Europe. Firstly the Europeans do agree to free trade and to share their prosperity. But they do disagree on their view of the world, some are pro-Americans like the British or Poles, some are anti-Americans like the French and the Spanish. So there is no possibility of building up Europe as a counter power vis-à-vis the US. I modestly think we should stay with the initial agenda because it has been so successful and the lesson for the rest of the world is that free trade leads to peace. Not necessarily. It is not a sufficient condition but it does help people to be more civilized in their relationship.

Q Mr. Guy Sorman, I am in full agreement with the point you raised. The labor market flexibility and higher education system mutually reinforce to help the higher growth momentum. As you pointed out, Korea really has a serious problem in these two fronts, labor market flexibility and higher education system.

Now with a new Korean President who enjoyed a landslide victory on the promise that Korea would gain a new growth momentum, pledging what is called a "747" policy to raise the growth rate to 7%, to make Koreans' per capita income 40,000 dollars in the next 10 years and to make Korea the 7th largest economy in the world.

After seeing the performance of President Sarkozy who also promised and tried to deliver a reform agenda in labor market flexibility and education system. But I recently read in the *Economist* that his performance was very disappointing, that he could not deliver on his promises. So my question is what can the Lee Myung-pak government learn about President Sarkozy's performance, even though he really tried to push through his reform agenda.

A Well, keep one wife at a time, so you don't get distracted. Sarkozy's private life really was an embarrassment for him and the nation during the first six months. He was completely distracted and they were only interested in his private life so he was unable to make any decision. That has been a disaster. But things happen. The fact that the President was not able to focus on his office was a terrible consequence.

If we put aside the personal life of President Sarkozy, what can we learn that has more general consequences? Two things. One you need to have a very clear political agenda, in the case of Sarkozy the political agenda was not clear. He promised everything to everyone. And if you don't have a clear-cut agenda and if you are not prepared to have enemies you will lose. You must be prepared to have enemies. You must be prepared to say here are the people who I will be working with and here is my opposition and we won't have the same vision. Sarkozy wanted to include everybody in his government, he put a lot of socialist members in key positions in the government. Therefore this very nice and charming consensus building does prevent him from taking difficult decisions. He has become the prisoner of his own socialist minister. He cannot make decisions that would send his socialist minister out of the government. So you better keep with your own people with your own majority, don't try to build a consensus. No consensus building, I think in democracy consensus building is not necessary. You have a majority and you have an opposition, if the opposition is not happy, they will run again next time and maybe it will be their turn.

As I said before, clear cut agenda and explain. If you are in favor of a free

market policy, you should explain that you don't do that because you are a committed ideologue, you don't do that because you are in love with some free market economist or you want to copy the United States. No. You do that for the good of your own country and you have to explain in very simple terms what it means for every Korean. "I am choosing this country because you, you and you in this place in five years time will be better off".

So communication is a key element in a free market-orientated economic policy. If you apply a left-wing policy, you don't have to explain because it is nice, basically it is nice. You are with nice people, it is good for the people so communication is not necessary. But free market you need to explain because the spontaneous reaction of the people is negative. So clear-cut agenda, no consensus, explain, explain constantly that it is for the good of the people. This is the kind of recommendation I could do based on the French experience because this has not been done in the case of France. It had been done in the UK by Madame Thatcher, it had been done by Ronald Reagan and strangely enough it had been done by Schroeder in Germany.

When Schroeder in Germany, being a Social Democrat, was explaining why he was cutting welfare in Germany, he was able to convince people that he was cutting welfare for the benefit of the German people. And this was understood. There was a very strong argument used by Schroeder and it worked very well in Germany. It was the argument of seriousness, let's be serious. Let's not try to sell a kind of economics that looks nice but works nowhere, you deserve a serious economic policy, we have to balance the budget because we are serious, we have to fight inflation because we are serious. The argument of seriousness, which was a cultural argument, was also extremely helpful in promoting the kind of policy that has been implemented in Germany. So those are some arguments that could be used.

Q Will a FTA between South Korea and the EU be mutually beneficial to both economies?

A The answer is yes. And I don't see how it could be no. It does not come to mind of any free trade agreement that has been bad, I cannot think of any example in the world in which a Free Trade Agreement is bringing disaster. The benefits are evident. As you know, free trade does increase mobility and flexibility. Therefore free trade is good if the country is prepared to adapt very rapidly. Which brings us back to this labor flexibility question and education question. But within this framework there is no debate about it. But of course you have certain lobbies opposed to it and certain insiders, which oppose. Therefore we get back to this essential aspect of a free market, which is communication. And this kind of communication should always be rooted in the national culture. When I mentioned Schroeder, he was using German concepts to explain when he said "my policies are serious." In France seriousness is maybe not the right concept. But it is good to root the economic policy in the national tradition. There is always this risk with free trade and with free market that it looks too American, that it is good for United States. No. You have to bring it back to their own tradition, the bourgeois tradition of Korea, the work ethic of Korea, the merchant culture of Korea. So that people can connect national interests, free trade and free market. It is not some kind of foreign gimmick which was brought into Korea, it is the true civilization of Korea to act as entrepreneurs.

Q It is reported that Scandinavian countries, Sweden, Norway and Finland are ahead of the United States in terms of productivity level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even though they maintain a mixed economic system of socialism, high level taxes, welfare and less flexible labor market. And some reports point out that the prospects of the Irish economic outlook is not good as it is too vulnerable to foreign factors. I am wondering about your response on such reports.

A Well there are some rumors about Ireland very recently because of the level of ineptness of the Irish companies. There are fears of a credit crunch in Ireland. It is true the growth of Ireland has been tremendous for twenty

years and it has been based on, a bit like China, foreign investment. There is then a fear of a credit crunch in Ireland. So far those are only rumors, nothing has really happened. I don't think that threatens Ireland. There are many people who don't like the success of Ireland because it is too much dependent on foreign investment; it is a kind of nationalistic thing. But so far for the Irish people the situation has been very good.

What you say about Scandinavia was true is no more true. Starting in 1980s the Scandinavian countries began to completely transform themselves. There has been high level of privatization, especially in Sweden where nearly everything has been privatized. And even the local services have been privatized, schools have been privatized, kindergartens have been privatized. So this so-called Swedish model, which had been extremely popular all over the world in 70s and 80s, doesn't exist anymore. It is true that there is a kind of, I would say, a feeling of social responsibility in Scandinavian countries which is less geared to the institutions and more geared to the local culture. Those are a very small number of people and therefore there is a sense of solidarity which is more rooted in the common civilization and common religion. So people would behave in a less selfish way than, I would say, they would in Europe. But it has more to do with the civilization and it has nothing more to do with the institutions, they have been completely erased.

The case of Denmark is very interesting and it has been studied over and over. You have a complete flexible labor market in Denmark. We don't have time to go into the details but basically you can be fired overnight, more easily than the United States. There is a kind of system that is financed by the companies which takes care of you immediately so that you will be retrained and if possible put into another company. It is called Flexi Security, so everybody now is going to Denmark to study the system. But this system of total flexibility works because it is a very small country where everybody knows everybody. So it is quite easy like in Singapore. It is kind of easy to organize such systems in a very small nation with a family-like relationship.

And just one quick remark because we did not talk about it in the case of South Korea. This welfare system, the big bureaucratic welfare system like in France or the small locally managed welfare system in Scandinavia. They now have to deal with a completely new population which are the migrants. And the migrants, they don't have the same kind of behavior than the other people and sometimes they would come to France, Netherlands or Sweden because of the welfare system. This is very disruptive and this is a new kind of problem and we don't have time to elaborate on this. Any country where the demographic is going down as in South Korea will be confronted and is already confronted by immigration. So far it is not a problem for Korea. But because of the demographics it will become a problem.

Take the case of Japan. Japan is discovering that there are millions, not just a few Filipino maids but millions of workers from Iran and Pakistan. There are millions of workers, so this creates a new situation and it is the same in the United States. If you have a welfare system, can the immigrants access the welfare system and under what condition? And in the case of France we have millions of immigrants who come because of the welfare system. They are perfectly rational. They want good schools, free, they get them. They want access to good health care, they get it. Why wouldn't they come? It's not their fault. It is we who are not rational. So what I mean by that is any welfare system now, including South Korea, must be devised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e fact that you will have more and more guest workers.

Q Thank you for your lecture today. You stressed the importance of the quantity of working hours, in this regard in some way I agree and in some way I disagree. The quantity of working hours is very important. However I think the way of thinking or the working method and the system is much more important than just working hard. Too much work can be a hindrance on creativity. Let me give you two examples. The first one is the method of communists. The average working hours of communist countries is similar to capitalist countries but the productivity and growth rate is less

than that of capitalist countries. The second one, is that the productivity of IT system, computers save on the working hours a lot. In this regards what is your opinion.

A When we are talking about the quantity of work hours as a parameter to explain the growth rate. We are talking within homogenous systems. I am not comparing North Korea with South Korea. I am comparing countries which basically use the same techniques and produce the same kind of things with the same kind of management. And the Prescott theory only works within a homogenous economic system. One of the surprises of the Prescott theory, which is now part of the economic consensus, was to show how important the quantity of hours and how it cannot be compensated with productivity gains. But please do look at the Prescott theory, directly in Prescott or in my book. When you were talking about the communist economy, there was an old joke that the workers pretended to work and the communist party pretended to pay them.

Q I very much enjoyed your lecture but I found something that is very much inconsistent. It is somehow more a remark than a question, that is something of building a national brand and you advised Korea to build a national brand. I find that with the market system, you find that companies build their brands that give the message rather than nations. France and perfumes, Italy and fashion, Germany and cars are things we got from the past but are not something that is wise to promote for the future.

The slow growth of Europe, the role of the European Union in it, does it have no relevance? Without the EU would it be even slower or is it the stumbling bureaucracy that makes it so slow?

A On the second question. The so-called European bureaucracy, if you mean by that the people in Brussels, it is a very small administration compared to the size of the European Union and certainly they are not slowing down growth. On the contrary I would stress the two benefits of the EU in terms of growth. First, the EU Commission has been very efficient to

regulate the telecommunications market in Europe. And the same for airlines, transportation. All this has been deregulated by the Commission. And the growth has been tremendous because of this deregulation. And this deregulation could only be done at a European level because no national government had the courage to take this kind of deregulation. Because the lobby was so strong in Germany and France that they could not have done this kind of deregulation. Thank God, the national governments are able to say it is not our fault but those guys in Brussels who are deregulating the energy market. But those guys are doing the right thing.

And the same goes with the Euro. Everybody agrees to criticize the European Central Bank in Frankfurt but it is good we have the Central Bank. Because one of the major distortions of the European economy has been inflation. And because of the Euro we don't have inflation anymore. And not having inflation, this has three good consequences, prices are stable, retired people get their pensions, investments are real investments and not speculation. So deregulation and the Euro are the two pillars of growth in Europe. If we didn't have that there we would be in a much worse situation in Europe.

About promoting a brand. Should countries promote a brand, isn't it for a private company? Well, I think both. Private companies do promote their own brands and to have a lot of brands is a source of wealth. America is number one because you are able to quote a hundred American brands, you can quote many German and Japanese brands, some Czech brands can be quoted, not many about South Korea, zero about Mainland China. Which shows how backward the economy is in Mainland China, there is not one Mainland China brand which is recognized globally. Beyond that, should a nation promote its brand? It is difficult because as you know a brand is a consequence of history. As you know it is not easy, how do you promote Zimbabwe as a brand? But some countries can do that. Japan did it. Clearly Japan did it in the 60s. Japan decided to rebuild and they put a lot of money in that. The Olympics in 64 was part of that reconstruction process, to have a very strong and positive message of what "Made in Japan" means. It

was a very deliberate policy and it is still going on and they still put a lot of money into that and it was very cleverly done I must say.

For some countries it can be done and it has economic advantages. Because once again you can sell out at a higher price if the country can be related to a dream. To stick with an easy example, with French perfume, you will pay ten times the real price because they are French. And the same perfume from Belgium you could not sell for the same price even if it was the same perfume. With China, they sell because it is cheap and it was the case with Korea. And Japan in 1920s and 1930s: Japan was cheap. South Korea is in between, I think there is a deficiency in the perceptions of what South Korea is about. This can be corrected because you have some historical basis. I would not recommend that in any civilization but I think for South Korea it can work and South Korea as a brand can be considered, to use an economist concept a “public good” and as a “public good” justify some kind of public investment.

유럽의 경제침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Guy Sorman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되어 매우 기쁘다. 본인은 아침 일찍 일어날 수 있는 한국의 능력을 매우 존경한다. 아침 7시에 회의장이 가득 차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프랑스에서는 10시나 10시 반 경에 회의가 시작된다.

본인은 작년도 강연에서 큰 자신감을 가지고 미국 경제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같은 논의를 지금 다시 한다고 해도 본인의 견해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미국 금융시스템의 위기는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미국 금융위기의 영향은 크지만 미국 경제 자체에는 충격을 주지 못하고 있다. 미국 경제의 성장이 둔화되었으나 경기침체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시스템 내부의 문제로 볼 수 있겠으나 시스템 상의 문제는 아니다. 미국 경제의 실패, 나아가 자본주의가 소멸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실망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그렇지 않다. 이와 반대로, 크게 잘못된 미국 금융시스템 관리에도 불구하고 미국 및 세계 경제는 매우 탄력적이며 잘못된 관리로 인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듯하다.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잘못된 금융관리가 미국 시스템 및 경제의 탄력성을 입증했다는 것이다. 앞으로 몇 달 또는 몇 년 뒤에도 본인의 이러한 생각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사고나 위기는 발생한다. 그러나 본인이 일 년 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위기는 시스템 내부에 있는 것이지 시스템 자체의 위기는 아니다. 이는 본인의 저서인 “경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Economics Don't Lie)”에 담겨 있는 주장 중 하나이다.

미국에서 눈을 돌려 유럽 및 유럽의 저성장 문제로 가보면, 이러한 유럽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며 또 한국은 어떤 점을 배울 수 있는가? 물론 모든 것이 상호 연관되어 있다. 19세기 말 이후 미국 경제는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위치에 있다. 미국은 성장과 혁신, 기술혁신뿐만 아니라 경영혁신에서도 선도국가이다. 어느 시대에 건 시스템 상의 선도국가가 있는데 미국 이전에는 영국이 선도국가였다.

* 이 글은 2008년 5월 14일 개최된 IGE 특별강연회 내용을 녹취하여 번역·정리한 것으로 필자의 개인 의견임을 밝혀둡니다.

1세기 내내 모든 나라들이 미국 경제를 따라잡기 위해 애쓰고 있다. 아마 언젠가는 다른 나라가 미국 경제를 따라잡아 그 역할을 떠맡으면 세계는 새로운 선도국가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서유럽, 아시아, 인도, 브라질, 남미 등 미국을 따라잡으려는 모든 나라들이 미국의 거시경제정책뿐만 아니라 미시경제, 경영 및 기술 혁신 등 모든 것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미국에서 만들어져 온 것과는 크게 다른 미시경제정책이나 거시경제정책, 경영 및 기술 혁신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것이 현실이다.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 좋다거나 싫다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실이라는 것이다. 자동차, 휴대전화를 제조한다거나 기업 및 은행을 경영함에 있어서 중국식, 인도식, 또는 한국식 방법이 없다. 미국보다 더 잘 할 수 있거나 못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는 미국 내에서 정의되어온 지침을 따르고 있다.

서유럽에 주목해보면, 2차 대전 이후 크게 특기할 사항은 전후 복구 작업과 미국을 따라잡고자 하는 노력이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서유럽을 보면 모든 나라들이 미국 따라잡기를 하고 있었다. 1950년대의 경우 독일인과 프랑스인의 소득수준은 미국의 절반 정도였다. 이러한 소득수준이 1960년대 말에는 미국의 80%에 이르렀다. 동일한 “따라잡기” 현상이 일본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그리고 한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의 새로운 나라들이 이러한 따라잡기 경쟁에 참여했다.

따라서 1960년대 말과 1970년대의 일반통념은 미국처럼 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경제모델이라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국가의 규제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더 훌륭하다는 논리였다. 프랑스와 한국 또는 일본 등에서도 같이, 이는 일종의 중앙집권적 계획과 특정부문에 대한 대규모 공공투자를 통해 국가가 더욱 지배력을 구사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복지국가 체제 또한 확실히 미국보다 서유럽이 더욱 발달했다. 당시의 일반적인 통념은 미국이 경쟁에서 밀려나고 유럽 그리고 어쩌면 일본이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었다.

위와 같은 의견은 1980년대 초에 사라졌다. 1980년대 초에 세계화라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왜 그런 것인가? 간단한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는 소련(Soviet Union)이 사라지기 시작하여 두 개의 경제체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자유시장이라는 단 한 가지 체제만 남았기 때문이었다. 즉 경쟁자가 사라진 것이다. 두 번째는 기술변화, 특히 인터넷으로 인해 통신과 교환이 즉석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통신, 정보, 자본이라는 측면에서 진정한 세계시장을 처음으로 갖게 된 것이다. 1980년대 초에 미국은 세계가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고 있음을 이해한

것으로 보였다. 일본과 서유럽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실상 이해하지 못했다. 미국이, 그리고 나중에는 영국의 대처(Margaret Thatcher) 총리가 실행에 옮긴 많은 변화들은 새로운 세계경제 영역의 새로운 매개변수를 고려했다. 특히 국가의 역할은 축소되고 자유무역은 증가되어야 했으며, 경쟁의 범위가 확대되어 기업가에게는 보다 많은 자유가 부여되고 노동시장은 유연하게 유지되어야만 했다. 아시다시피 지난 번 강연에서 본인이 설명했던 “창조적 파괴(Destructive Creation)”라는 개념은 대내외적 경쟁으로 인해 한 부문에서 다른 부문으로 신속하게 이동하는 능력을 말한다. 창조적 파괴가 성공의 열쇠였다. 영국과 아일랜드를 제외한 유럽 국가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했거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반대로 서유럽은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기존 체제가 경제적 측면에서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도 더 나은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것이 1980년대 초 서유럽에서 나타난 일이다. 세금은 올라가고 국가의 규제가 증가하였으며, 복지국가는 강화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줄어들었다. 왜 이와 같은 결정들이 이루어졌는가? 성장이 둔화되면 자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태에서 복지국가를 유지하려면 복지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1980년대 초에 일어난 일은 지금까지의 복지국가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투쟁이었거나, 아니면 기업가에게 보다 많은 자유를 부여하기 위해 연금보험 및 퇴직제도에 경쟁을 도입하여 복지제도를 제한하는 것이었다. 영국과 아일랜드만이 이른바 미국식 방법을 채택했다. 다른 나라들은 모든 것을 동일한 상태로 유지하였으며 심지어 경제시스템의 경직성을 증가시키기까지 했다. 이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했다. 서유럽의 경우 이 기간 동안에 세금이 증가해온 이유조차 모르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세금이 빠르게 증가한 것은 저성장의 결과이다. 성장이 둔화될 경우 복지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증가시켜야만 한다.

서유럽이 왜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궁금할 뿐이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1980년대 초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대부분의 유럽대륙 국가들이 1~2%의 매우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것이다. 인구증가율도 여전히 1~2%였다. 실질성장률은 20년 넘게 0%였다. 이 같은 현상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종류의 침체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며, 이러한 경제적 선택이 정치적 동기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이해해야 한다.

서유럽은 대다수 사람들이 고령인 편으로, 그들은 직장이 있거나 퇴직했거나 아니면 공무원들이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지금의 시스템이 매우 좋다. 생활상의 혼란이 없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경우 인구의 25%가 공공서비스 조직 또는 공기업과 같은 공공시스템에서 일한다. 퇴직한 사람들도 대부분 국가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령자나 공무원들의 관심은 현상유지이다. 기존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부가 청년층, 이민자, 무교육자, 젊은 기업가 등 기득권 밖의 사람들(outsiders)에게 의존할 필요가 있는데, 이처럼 시스템 변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소수집단이다.

여기서 잠깐 서유럽에서 일본 쪽으로 방향을 바꿔보자. 일본의 상황은 서유럽과 매우 유사하다. 10년 넘게 0%의 성장률을 기록함으로써 일본 경제학자들이 “잃어버린 10년(lost decade)”이라고 일컫는 상황을 살펴보면, 일본이 그러한 상황을 조장한 적이 없다하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집단적 선택이었다. 일본의 경우 어떤 상황이 나타났는가? 기본적으로 고령인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심지어는 손실을 내고 있는 이른바 “유령회사”조차도 은행의 도움을 받아 아무 탈 없이 꾸려나갈 수 있었다. 유령회사와 그 종업원들, 정부 부서(일본의 우편서비스를 생각해 보자.), 퇴직자들 모두가 유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득권자들(insiders)이다. 그들은 0%의 성장률을 기록하더라도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시스템을 바꾸어 혼란에 빠지는 것보다는 0%의 성장률이 더 편했던 것이다. 그래서 일본이 오늘날의 유럽과 비슷하나,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인해 일본의 상황은 더 나쁜 것으로 보인다. 서방 경제와 마찬가지로 일본 경제를 현재보다 더욱 동태적으로 만들기 위한 지원수단은 그리 많지 않다. 이러한 측면이 사람들에게 정상적으로 설명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경제적 현실과 정치적 현실 사이에 상당한 모순이 있기 때문이다. 서유럽이나 일본에서 경기침체를 공약으로 출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두가 성장을 약속하지만, 성장을 지난날의 궤도로 되돌려 놓을 혁신적인 개혁프로그램은 전혀 없다.

우리가 서유럽 혹은 유럽에 관해 논할 때는 어떤 차이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국과 아일랜드는 상이한 성장경로에 있으며 문화적으로 매우 가깝다. 이들 양국은 1970년대 말의 상황이 절망적이었던 관계로 미국 쪽에 훨씬 가까운 경로를 택하여 매우 성공적인 상태이다. 아일랜드는 한때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지만 지금은 부유한 나라에 속하며, 아시다시피 런던은 세계 금융 중심지이다.

1991년 이래 빈곤과 사회주의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동유럽 지역 또한 폴란드, 헝가리, 체코 및 슬로바키아 같은 나라들은 미국의 자유시장 방식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 결과가 매우 좋다. 1990년대에 이들 동유럽 국가에 대해 논의되던 것을 상기해보면, 대부분의 논객들은 동유럽이 서유럽을 따라잡으려면 50년이 걸릴 것이라고 했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빗나갔다. 자유로운 기업가 정신을 확실하게 선택하여 통제경제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부정하고, 거의 모든 것을 민영화함으로써 동유럽 국가들은 급속히 서유럽을 따라잡으며 눈부신 성공을 이루고 있다. 이는 이념과 자유시장 정책 양쪽 모두의 성공이다.

서유럽(기본적으로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저성장을 설명함에 있어서 자주 거론되지 않는 한 가지 요인을 언급해보고자 한다. 즉 일을 덜하기로 결정한 것이 그것이다. 일본도 1980년대 초에 같은 결정을 했다. 1980년대 초 일본 정부는 일본인들이 너무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주말을 늘려야 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공공서비스와 은행이 토요일에는 영업을 하지 않았다. 독일과 프랑스도 이와 비슷한 결정을 하였고 1983년부터는 주 35시간 이상의 노동이 법으로 금지되었다.

여기에서 경제의 모든 매개변수를 살펴보기 위해, 2년 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에드워드 프레스캣(Edward Prescott) 교수의 논문을 언급해보겠다. 프레스캣 교수는 한국, 일본, 프랑스, 미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휴대폰 등의 제품과 서비스는 결국 동일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사실 이들 국가 간에는 다른 점이 없다. 경영기법도 같고 기술도 같다. 다음 주나 다음 해에 어떤 기술이 개발되면 그 기술은 세계 도처에서 사용될 것이다. 프랑스나 한국, 일본의 자동차 공장을 가보면 제조기술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국가 간의 성장률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이는 노동시간의 수에서 온다. 성장률의 차이를 설명하는 매개변수는 기본적으로 한 국가가 세계 전체적으로 기여한 근무시간이다. 이것이 이해하고 전달하기는 어려운 개념이다. 어제 본인이 이러한 내용을 서울의 한 기자에게 설명하자 그는 “우리는 일을 많이 합니다.”고 했다. 그래서 본인은 “물론 귀하가 개인적으로는 일을 많이 합니다.”라고 대답하였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닌 각국별로 본 세계 전체에 관한 것이다. 현재 한국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국가 전체의 근로시간이 계속 단축되고 있으며, 이러한 근로시간 단축의 결과로 성장률이 둔화된 것이다. 이는 간단한 산술이다. 이를 증명하기란 매우 쉽지만 정치적 담론으로 전달하기는 아주 어렵다. 사람들이 이를 쉽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고, 미국 따라잡기를 중단한 많은 나라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설명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수치상으로 본다면 1950년도 이탈리아의 1인당 소득은 미국의 50%, 심지어 40%까지 간 적도 있었는데 1970년대 말에는 80%로 상승하는 괄목할만한 성공을 이루었다. 지금은 1인당 소득이 미국의 65%이다. 가차 없이 하락한 것이다. 이유는 이탈리아인들이 일하기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것이 선택인가? 그렇다. 그것은 집단적 선택이다. 하지만 그러한 점이 이와 같이 명료하게 설명되지 않고 있다. 가장 큰 오류 중 하나는 생산성 증가가 근로시간 상실을 보전한다는 생각이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웃국가보다 높은 생산성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생산성은 동일하다. 기본적으로 한국, 일본, 프랑스, 미국의 생산성을 비교해보면 거의 대등하고 기술도 같다. 그러므로 차이는 기본적으로 근로시간 수에서 나타난다. 한국이 문제를 극복하고 높은 성장을 회복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한국 경제가 안정단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한국의 성장률 회복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있다. 즉 성숙된 경제에서는 성장률이 초기보다 훨씬 둔화된다는 것이다.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한국을 앞서가는 선도국가가 있는 한 따라잡을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성숙된 경제여서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주장은 한국의 생산 및 축적된 부가 미국의 축적된 부와 같은 수준이라면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한국은 아직도 미국보다 훨씬 뒤에 있다. 성숙에 관한 논의는 올바른 경제논의가 아니다. 경쟁 때문이라는 주장 역시 올바른 논의가 아니다. 프랑스 제품이 중국 제품 등으로 대체되는 것은 경쟁 때문이 아니다. 경쟁이 시장의 규모를 확대시켜 현재 세계시장은 더욱 커진 상태이다. 그러므로 성장둔화는 치열해진 경쟁 때문이 아니라 규모가 커지고 있는 세계시장에서 충분히 경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주장은 경제이론상으로 합당하지 않다. 이 두 가지 주장을 제거해버리면 한국이 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유럽이 어떤 일을 해야 할지로 귀결된다. 자유시장 문제는 거론하지 않겠다. 우리 모두가 자유시장, 경쟁, 그리고 창조적 파괴가 무엇을 뜻하는지 기억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다.

핵심요소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다. 노동시장 유연성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책적 매개변수이다. 이는 본질적인 것으로 시행하기가 극히 어렵다. 왜냐하면 노동시장 유연성에 관심 없는 사람들과 대항하여 정치적인 투쟁을

해야 하는데, 그 대상이 기득권 밖의 사람들이 아닌 내부자들이기 때문이다.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기득권 밖의 젊은 사람들도 자신이 그러한 시스템의 희생자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고자 하는 집단을 결코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철저히 보호받고 있는 일자리를 가진 기득권자들은 현상유지를 위해 목소리를 극도로 높일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시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담화의 내용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자유시장 경제를 촉진하고자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면 그 정치지도자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레이건(Ronald Reagan) 대통령, 대처(Margaret Thatcher) 총리, 콜(Helmut Kohl) 총리, 심지어 사회주의자라 불리는 슈뢰더(Gerhard Schroeder) 총리도 각자 자국에서 자유시장 경제와 노동시장 유연성이 기득권 밖의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는 점을 확신시키는데 크게 이바지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그들은 항상 일자리 없는 불쌍한 사람을 언급하면서, 바로 그 가련한 사람이 자유시장 경제의 첫 번째 수혜자라는 점을 보여주며 전달했다. 그러므로 설명의 내용과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이 관건이다. 프랑스의 경우 대통령이 지금까지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한 취약점은 그가 정치강령으로 약속한 개혁을 이행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본인은 경제성장 제고에 매우 중요한 또 다른 두 가지 요인을 거론하고자 한다. 모든 사람들이 교육에 관해 이야기 하는데, 교육에는 두 가지의 덕성이 있다. 첫째,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더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받아들일려고 한다.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응할 수가 없다. 고등학교의 기본교육, 기술학교, 대학교육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실천하는 관건이다. 본인이 한국에서 많은 대학을 방문하였으나, 아직도 교육현실은 같은 수준의 나라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보다 크게 뒤쳐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교육은 매우 보수적이다. 한국의 대학은 여타 세계에 대한 개방 폭이 크지 않아 외국인 학생과 교수의 수가 적다. 그래서 본인은 한국의 대학들이 성장을 제고할 준비가 되었는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다. 이는 많은 한국 학생들이 해외유학을 한다는 사실에서 뒷받침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유학생들이 해외에서 귀국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본인은 성장제고의 핵심요소 중 하나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위한 기본교육, 그리고 더욱 경쟁이 치열해지는 세계에서 혁신을 촉진시키는 고등교육이라고 생각한다. 본인이 느끼는 한국의 몇 가지 취약점은 이러한 것들이다.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본인이 수없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하지 않겠다. 본인은 한국이 자국의 문화를 경제자산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수

년간 항상 해왔다. 한국 문화가 해외에 잘 알려져 있지 않아 한국의 이미지가 매우 취약하다. 본인은 이러한 것이 어떤 경제적 결과를 가져다준다고 생각한다. 본인이 종종 애용하는 간단한 방식으로 설명하자면, 가령 향수를 사고자 할 경우 여러분은 프랑스 향수를 구입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프랑스의 이미지이기 때문이다. 고급 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한다면 독일 자동차를 구입할 것이다. 그것이 독일의 이미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멋있는 스타일의 전자용품을 구입하고자 한다면 일본 제품을 구입할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프랑스인들은 삼성이 일본 기업이라고 생각한다. 삼성이 일본의 이미지와 부합하기 때문이다. 삼성도 이를 알고 있다. 본인이 삼성에게 왜 한국 제품으로 판촉을 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그들의 대답은 소비자를 잃을 수 있으며 소비자들이 일본 제품으로 생각해도 삼성에게는 매우 좋은 일이라는 것이었다.

이처럼 한국의 이미지는 매우 취약하다. 그래서 본인이 명명한 “문화적 부가가치(cultural-added value)”라는 것이 부족하다. 자세히 설명하진 않겠지만, 한국이 조직적인 국가홍보 활동을 통해 문화적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한국은 자국의 브랜드 이미지를 촉진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세계시장의 소비자들이 한국산이기 때문에 한국 제품에 끌리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본인은 한국산이기 때문에 한국 제품을 구매한다는 소비자를 보지 못했다. 이는 한국의 이미지가 취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매개변수, 즉 자유시장을 지속시키는 거시경제적 매개변수인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창조적 파괴의 장려, 유연성 제고를 위한 교육, 개방된 훌륭한 대학 외에도 한국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한국의 이미지 혁신 및 촉진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거론된 몇 가지 요소들은 한국이 다시 고도성장의 궤도로 진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이 학습곡선의 정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고도성장 달성은 가능하다. 한국은 여전히 학습곡선 상에 있으며 정상에 도달하려면 몇 년은 더 걸릴 것이다.

질의 · 응답

질문 훌륭한 강연에 감사드립니다. 미국이 경기침체 상태인지 아니면 경기침체로 가고 있는지 등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에 대해 전 세계가 궁금해 하고 있다. 미국 경

제가 침체에 빠졌는지 여부에 대한 미국 NBER(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의 공식적인 최종판단은 시간을 두고 좀 더 지켜본 후 발표될 것이다. 미국 경제에 대한 귀하의 느낌은 어떠한가? 귀하는 미국이 겪고 있는 위기의 영향에 대해 보다 낙관적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지도력은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는 금융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금융서비스가 지금 현재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사람들이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언젠가 금융조직의 재편성이 있을 것인지 궁금하다. 이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무엇인가?

답변 매우 가치 있는 질문이다. 위기 발생이후 모두가 경기침체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은 알고 있다. 미국 경제가 2분기 이상 1% 미만의 저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마이너스(-)의 성장은 아니다. 따라서 전문적으로는 경기침체가 아닌 저성장에 대해 논해야 된다. 그리고 일자리 시장도 저성장으로 인한 충격 사실상 받지 않고 있다. 일부 사람들에게 대한 급여가 갑자기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업률은 매우 낮으며 물가는 통제되고 있다. 물가통제는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데, 물가를 잡지 못하면 앞으로의 투자가 위협받게 되기 때문이다. 염려되는 부분은 신용경색이었다. 은행들이 대출을 하지 않으면 소규모 기업들은 자금을 빌릴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용경색도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최악의 상황을 벗어난 상태이다. 미국 경제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으며 펀드멘털(fundamentals)도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본인은 훌륭한 위기관리와 재무부를 비롯한 미국 당국이 과거의 위기로부터 얻은 교훈이 그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경제학의 장점은, 오류를 범하지만 오류로부터 교훈을 얻는다는 것이다. 두 가지의 중요한 오류가 1930년대와 1970년대에 있었다. 1930년대의 오류는 국경을 폐쇄함으로써 10년간 위기를 악화시킨 보호주의적 경제였다. 혹독했던 1930년대의 위기는 미국 중앙은행과 정부의 잘못된 개입으로 인한 재앙이었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이다. 1930년대의 위기는 정부와 재무부가 보호주의나 규제에 흘러서는 안 되며, 자본주의는 경제 자체를 자발적으로 치유한다는 생각을 분명히 갖게 한 사례이다.

다른 한 가지 오류는 케인즈학파의 정책이 처음 시행된 1970년대에 미국 연준이 통화량을 대폭 증가시킨 것이었다. 그 결과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stagnation + inflation)”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탄생시켰으며, 이 같은 오류를 다시는 범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미국 경제 시스템 내에서 발생한 위기가 심화되지 않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훌륭한 위기관리이다. 이러한 위기관리는 과거에 있었던 두 번의 위기에서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 각국 정부 및 중앙은행은 그 두 가지 과학적 교훈을 받아들여 왔다. 그리하여 주요 시장참여자들, 즉 아시아 및 유럽 각국의 중앙은행과 미국 간에 어느 정도의 조정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대미 투자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신용부족의 위험은 존재했다. 문제는 외국 국부펀드의 미국 투자를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누군가가 반드시 내놓아야 한다. 미국과 유럽이 중국, 쿠웨이트, 러시아의 국부펀드를 받아들이겠는가? 본인은 미국이 이를 수용할 것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펀드가 금융상 필요하며 위험도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국부펀드가 어느 국가나 산업에 투자되면 그것은 그 시스템의 일부가 된다. 일본 기업들이 뉴욕과 캘리포니아의 부동산을 매입했던 1980년대의 논쟁을 상기해보라. 미국인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록펠러센터(Rockefeller Center)를 일본인에게 팔 수 없다고 했지만, 일본인들이 록펠러센터를 일본으로 가져갈 수는 없었다. 지금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조만간 국부펀드가 미국 국채뿐만 아니라 실물경제에도 투자될 것이다. 이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위기의 장기 후유증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질문 귀하의 강연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질문이지만, 귀하는 EU라는 기구가 “민주성 결핍(democratic deficit)”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이것이 경제 분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답변 EU를 연구하는 학생들은 EU의 “민주성 결핍”이 무엇인지 알 것으로 확실하지만 EU 회원국들이 이를 아는지는 잘 모르겠다. “민주성 결핍”이란 일종의 암시적 단어이다. EU의 주요 의사결정은 EU 집행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위원회가 기본적으로 선거로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주적이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그러나 위원회가 선거를 통해 구성되지 않아도 위원회의 위원은 각 회원국 정부에 의해서 선임되고 EU 헌법 내에서 활동한다. 따라서 그들은 매우 분명하게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EU에 “민주성 결핍”이 존재한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위원회는 EU 헌법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존중한다.

EU에 대해 본인이 약간 첨언하자면, EU는 유럽에서 발생하는 전쟁을 없애기 위한

자유무역기구로 창설되었다. EU의 출발점은 1천년 동안 전쟁을 겪은 유럽에서 전쟁을 어떻게 없애느냐 하는 것이었다. 그 해답은 자유무역이었다. 그래서 EU의 목적이 자유무역인 것이다. 그러므로 브뤼셀에서 내리는 결정은 모두 자유무역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자유무역을 하고자 한다면 규제를 공동으로 하거나 철폐하고, 국가보조를 폐지하며 공동통화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더 이상 전쟁이 없기 때문에, EU는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엄청난 성과를 이루고 있다. 사람들은 이러한 EU의 목적을 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EU가 다음에 할 일은 무엇이나, 미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나, 유럽은 왜 강력한 군대와 외교력을 구축하지 않느냐는 정치인 및 학자들이 현재 일부 있다. 하지만 EU의 목적은 그러한 것이 아니었다. 우선 유럽인들은 자유무역과 자신의 풍요를 함께 나누는데 동의하고 있지만, 세계를 보는 관점에서는 견해가 다르다. 영국인이나 폴란드인처럼 친미적인 부분이 있는가 하면, 프랑스인이나 스페인처럼 반미적인 부분도 있다. 따라서 유럽이 미국에 대한 견제세력이 될 가능성은 없다. EU는 초창기의 과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겸허한 생각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상당한 성과를 이루어왔고 자유무역을 통해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을 세계 여타 지역에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이 필요충분조건은 아니지만 대외관계에 있어서 사람들을 보다 세련되게 만드는 데에는 도움이 된다.

질문 귀하께서 제기한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노동시장 유연성과 고등교육 제도는 상호 보완적으로 고도 경제성장 동력에 도움이 된다. 귀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은 노동시장 유연성과 고등교육 제도 양쪽 부문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한국의 새 대통령은 한국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을 수 있는 공약을 내놓았다. 그것은 이른바 “747” 정책으로, 경제성장률을 7%로 끌어올리고 향후 10년 내에 1인당 소득을 4만 달러로 증가시켜 한국을 세계 7위의 경제대국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노동시장 유연성과 교육제고를 개혁과제로 약속하고 이를 추진했던 사르코지 대통령의 성과에 관련하여, 그의 개혁성과는 매우 실망스러우며 그가 자신의 약속을 이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기사를 최근 본인은 Economist지에서 읽었다. 설사 사르코지 대통령이 자신의 개혁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진정으로 노력했다고 하더라도, 그의 개혁성과에서 한국의 새 정부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답변 한 번에 한 명의 부인을 둔 사람은 마음이 흔들려지지 않는다. 임기 초 6개월 동안 사르코지 대통령의 사생활은 자신과 국가에게 당혹스러운 일이었다. 그는 완전히 흔들려졌으며 사람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그의 사생활이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었다. 이러한 것이 재앙이 되고 있다. 그럴 수 있는 일이지는 하지만 대통령이 자신의 직무에 집중할 수 없었다는 사실은 끔찍한 결과였다.

사르코지 대통령의 사생활을 제외한, 보다 일반적인 결과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두 가지이다. 첫째, 매우 확실한 정치적 현안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사르코지 대통령의 경우는 정치적 현안이 분명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국민들에게 약속했었다. 하지만 명백한 정치적 현안이 없고 정적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면 패배하게 된다. 정적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자신과 함께 일할 사람은 이쪽이고, 다른 비전(vision)을 가진 반대편은 저쪽이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모두를 자신의 정부에 포함시키고자 했으며, 그래서 정부 요직에 사회주의자들을 많이 배치하였다. 그런데 이처럼 훌륭하고 매력적인 공감대 때문에 그가 어려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사회주의자 장관의 포로가 된 상태이다. 그가 사회주의자 장관을 프랑스 정부에서 축출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자신의 사람들인 여당과 함께하는 것이 낫다.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민주주의에서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본인 생각이다. 다수당인 여당이 있고 반대편에는 야당이 있기 때문이다. 여당의 정책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다음 선거에서는 야당이 집권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명백한 정치적 현안과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만일 자유시장 정책을 선호한다면 자신은 굳건한 이념 때문에 어떤 일을 못한다거나, 자유시장경제 전문가를 좋아해서 또는 미국을 모방하고 싶어서 못한다고 설명해야만 한다.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은 자국에 유익하기 때문이며, 그것이 국민 모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매우 쉽게 설명해야 한다.

그러므로 의사소통은 자유시장 지향적인 경제정책의 핵심요소이다. 좌파적 정책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것이 기본적으로 달콤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가 없다. 순진한 국민들에게는 그러한 정책이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필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시장 지향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즉각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감대는 필요 없지만 현안을 명확히 해야 하며, 그러한 정책이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것이다. 프랑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종의 권고사항은

이와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프랑스에서는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처 총리 집권하의 영국과 레이건 대통령 하의 미국, 그리고 슈뢰더 총리 하의 독일에서는 이러한 것이 강력하게 이루어졌었다.

독일의 경우 사회민주당원인 슈뢰더 총리는 사회복지비용 지출삭감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러한 삭감조치가 독일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확신을 사람들에게 심어줄 수 있었다. 사람들은 이를 이해했다. 독일에서는 슈뢰더 총리의 강력한 주장이 훌륭하게 작동되었다. 그것은 진지함의 논의였다. 진지해져야 한다. 보기는 좋지만 쓸모없는 경제논리 같은 것은 내놓지 말아야 한다. 진지한 경제정책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가 진지하기 때문에 균형예산을 해야 하는 것이며, 진지하기 때문에 물가상승과 싸워야 하는 것이다. 문화적인 면에서 있었던 진지함의 논의 또한 독일에서 시행되어 온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적용될 수 있는 논의의 일부이다.

질문 한-EU FTA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겠는가?

답변 이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이다. 본인으로서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겠다. 세계적으로 FTA가 잘못되었다거나 FTA가 재앙을 가져다주었다는 어떠한 사례도 본인은 듣지 못했다. FTA의 혜택은 명백하다. 아시다시피 자유무역은 이동성과 유연성을 증가시킨다. 그러므로 자유무역을 신속히 채택할 준비가 되어있는 나라에게는 자유무역이 유리하다. 노동시장 유연성과 교육 문제로 되돌아가 보면, 자유무역의 틀 내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논쟁이 없다. 물론 자유무역에 반대하는 특정 로비단체와 기득권자들도 있다. 그래서 자유시장의 본질적인 측면인 의사소통의 문제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이와 같은 의사소통은 반드시 그 국가의 문화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앞서 거론된 바 있는 슈뢰더 총리는 자신의 정책이 진지하다는 말을 할 때 독일의 개념을 사용해 설명했다. 프랑스에서는 진지함이 올바른 개념이 아닐 수도 있다. 경제정책은 국가전통에 뿌리를 두는 것이 좋다. 자유무역과 자유시장이 지나치게 미국적으로 보이는 것은 언제나 위험이 있다. 이것이 미국에게는 좋겠지만 다른 나라에게는 그렇지 않다. 이러한 문제는 각자의 전통이라는 틀에서 설명되어야 하며, 한국의 경우는 한국의 중산계급 전통, 노동윤리, 상업문화 속에서 설명되어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국가의 이익을 자유무역과 자유시장에 연결시킬 수 있다. 이는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산 김치와는 다른 것으로, 기업가로서 활동하기 위한 진정한 한국 문화이다.

질문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스칸디나비아 국가는 높은 수준의 조세부담 및 복지, 유연성이 부족한 노동시장 등 사회주의와 혼합된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과 국가경쟁력 면에서 미국을 앞서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리고 일부 보도에 의하면 아일랜드는 대외요인에 너무 취약하여 경제전망이 좋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보도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어떠한가?

답변 아주 최근에 일부 아일랜드 기업들의 서투른 경영수준으로 인해 약간의 소문이 떠돌고 있으며, 아일랜드 내의 신용경색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고 있다. 사실 아일랜드 경제는 20년 동안 엄청나게 성장해왔으며, 외국인 직접투자에 의존해왔다는 점에서 중국과 약간 비슷하다. 아일랜드에 신용경색의 우려가 있다고는 하나 현재로서는 소문에 불과하고 실제로 아무 일도 없다. 따라서 본인은 아일랜드가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다수 사람들이 아일랜드의 성공을 달가워하지 않는 이유는 아일랜드가 외국인 투자에 너무 의존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는 일종의 민족주의적인 반응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아일랜드 상황은 매우 양호하다.

귀하께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 관해 말한 사실은 더 이상 사실이 아니다. 1980년대부터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자체적으로 완전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매우 높은 수준의 민영화가 이루어졌다. 특히 스웨덴의 경우는 거의 모든 것이 민영화되고 있다. 심지어 지방 공공서비스와 학교, 유치원도 민영화되고 있다. 그래서 1970~1980년대에 전 세계적으로 매우 인기 있었던 이른바 스웨덴 모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말하자면 사회적 책임감 같은 것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게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제도적이라기보다 스칸디나비아의 문화적 요인에 근거하고 있다. 스칸디나비아는 인구가 많지 않은 관계로 공통된 문화와 종교에 깊이 고착된 연대의식이 존재한다. 그래서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이 서유럽에 비해 덜 이기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이는 문화와 관계된 것이지 제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한 제도들은 완전히 사라졌다.

덴마크의 경우는 매우 흥미롭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덴마크는 완전하게 유연한 노동시장을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누구나 하룻밤에 해고될 수 있어서 미국보다 해고가 훨씬 쉽다. 그렇지만 기업들이 재원을 조달하여 해고자들을 돌보는 시스템이 있어서, 이 시스템을 통해 해고자들은 즉시 재훈련을 받게 되고 다른 직장에 재취업이 가능하다. 이른바 “Flexi Security”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연구하기 위해 모두가 덴마크로 가고 있다. 그러나 덴마크에서 이와 같은 총체적 시스템이 작동하는 이유는 덴마크가 소국이어서 모두 서로를 알기 때문이다. 따라서 싱가포르

르처럼 가족적인 관계를 가진 소국인 경우에는 이러한 시스템의 구축이 용이하다.

지금까지 한국의 복지제도에 관한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간단히 언급해보겠다. 복지제도에는 프랑스처럼 거대한 관료적 복지제도가 있는가 하면 스칸디나비아처럼 소규모 지역 복지제도도 있다. 거대한 복지제도이건 소규모 복지제도이건, 두 가지 제도 모두 외국인 이주자라는 전혀 새로운 구성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외국인 이주자들의 행동유형은 기존의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때로는 복지제도 때문에 프랑스나 네덜란드, 스웨덴으로 이주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지만, 이 문제는 매우 파괴적인 새로운 문제이다. 한국처럼 인구감소 추세에 있는 나라는 누구든, 외국인 이주자 문제에 이미 당면하고 있거나 앞으로 당면하게 될 것이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것이 아직까지 문제가 되지 않고 있지만 인구변동 때문에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이다.

일본의 경우를 보자. 일본에는 필리핀에서 온 소수의 가사도우미뿐만 아니라 이란과 파키스탄에서 온 노동자들이 수백만 명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로 인해 새로운 상황이 조성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의 경우 외국인 이주자들에게도 한국 복지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가? 있다면 어떤 조건 하에서 그러한가? 프랑스의 경우 복지제도 때문에 이주해온 외국인들이 수백만 명에 이른다. 그들은 완벽한 합리주의자들이다. 그들은 훌륭한 무상교육과 의료보호 등을 원하며 그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런데 그들이 왜 프랑스로 이주하지 않겠는가? 이는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프랑스인들이 합리적이지 못한 탓이다. 따라서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한국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든 복지제도는 반드시 외국인 노동자들이 더욱더 많아질 것이라는 사실을 고려하여 입안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질문 귀하의 강연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근로시간 수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본인은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근로시간 수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본인은 사고방식 또는 일하는 방식과 시스템이 열심히 일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과도한 노동은 창의력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두 가지 예를 들겠다. 첫째는 공산주의 방식이다. 공산국가의 평균근로시간은 자본주의 국가와 비슷하지만 생산성과 성장률은 자본주의 국가보다 낮다. 두 번째는 IT 시스템의 생산성, 즉 컴퓨터는 많은 시간을 절약한다.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무엇인가?

답변 성장률을 설명하기 위한 매개변수로써 근로시간 수를 말할 때는 동일한 시스템 내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다. 본인은 북한과 남한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적으로 동일한 관리방식으로 동일한 기술을 사용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나라들을 비교하는 것이다. 프레스캣 이론은 동질적인 경제시스템 내에서만 작동한다. 현재 경제 분야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프레스캣 이론의 놀라운 점 중 하나는 근로시간의 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은 생산성의 증가로 보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프레스캣 교수의 저서나 본인의 저서에 있는 프레스캣 이론을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귀하께서 말한 공산주의 경제에 대해서 말한다면, 오래 전 농담 중에 “노동자는 일하는 척하며 공산당은 봉급을 주는 척한다.”라는 말이 있다.

질문 귀하의 강연을 매우 즐겁게 경청하였지만 크게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질문보다는 다소 논평에 가까운데, 국가 브랜드 구축에 관한 부분에서 귀하께서는 한국의 국가 브랜드를 구축하라고 조언한 바 있다. 시장 시스템 하에서 기업들은 국가보다는 상업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업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프랑스와 향수, 이탈리아와 패션, 독일과 자동차는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미래를 위해 촉진하기에는 현명치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유럽의 저성장이 EU의 역할과는 관련이 없는 것인가? EU가 없었다면 유럽의 성장이 더욱 둔화될 수도 있는가? 아니면 EU의 잘못된 관료주의가 유럽의 성장을 둔화시킨 것은 아닌가?

답변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이른바 EU의 관료주의라는 것이 브뤼셀에서 근무하는 EU 집행위원회를 뜻한다면 그 행정부는 EU의 규모에 비해 매우 작은 행정부이다. 그러므로 EU가 성장을 둔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는 본인은 EU가 성장 측면에 주는 두 가지 혜택을 강조하고자 한다. EU 집행위원회는 유럽의 통신시장을 매우 효율적으로 규제해왔다. 항공노선과 운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규제완화가 EU 집행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 규제완화로 인해 엄청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어떠한 나라도 이러한 조치를 취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규제완화는 EU 차원에서만 가능했다. 왜냐하면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매우 강한 로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기란 불가능했다. EU 회원국들은 자신의 과오가 아니라 브뤼셀에 있는 EU 행정부의 과오라고 할 수도 있으나 그들은 현재 에너지 시장에 대한 규제완화를 진행 중이다. EU 행정부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

유로화도 마찬가지다.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을 비판하는데 모두가 동참하고 있지만 유럽중앙은행이 있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동안 유럽경제를 왜곡시켜온 것은 인플레이션이었는데, 유로화로 인해 유럽에

는 인플레이션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이 없어진 결과 세 가지 좋은 점이 있다. 물가가 안정되고, 퇴직자들이 연금을 받으며, 투기가 아닌 진정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완화와 유로화는 유럽 성장의 양축이다. 이 두 가지가 없었다면 유럽의 상황은 더욱 나빠졌을 것이다.

브랜드 촉진과 관련하여, 각국이 브랜드를 촉진해야 하는 것이 기업들을 위한 것인가? 본인은 양쪽 모두라고 생각한다. 민간 기업들은 자기만의 브랜드들을 촉진하며 많은 브랜드를 소유하는 것은 부의 원천이다. 브랜드가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인데 여러분도 100개 정도의 미국 브랜드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독일과 일본 브랜드도 많이 있고 체코 브랜드도 약간 있다. 한국 브랜드는 많지 않으며, 중국 대륙의 경우는 거론할 만한 브랜드가 없다. 이는 중국 대륙의 경제가 얼마나 뒤쳐져 있는지를 나타낸다. 중국 대륙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브랜드가 하나도 없다. 이러한 문제를 떠나, 국가가 자체 브랜드를 촉진해야 하는가? 아시다시피 국가 브랜드는 역사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를 촉진하기란 쉽지 않다. 짐바브웨와 같은 나라의 브랜드를 어떻게 촉진하겠는가? 그러나 가능한 나라들도 일부 있다. 일본이 그러했다. 일본은 1960년대에 확실하게 국가 브랜드를 구축했다. 일본은 국가재건을 결심한 후 여기에 많은 자금을 투입했다. 그러한 재건과정의 한 부분으로 개최된 1964년의 동경올림픽은 “Made in Japan”의 의미에 대한 아주 강력하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았다. 이러한 정책은 매우 의도적인 것으로, 아직도 진행 중이며 여전히 많은 자금이 투입되고 있다. 이는 매우 현명한 조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브랜드 촉진이 가능한 나라들이 일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브랜드 촉진은 경제적 이득을 갖는다. 한 나라가 꿈과 연계될 수 있다면, 그 나라는 한층 높은 가격으로 다시 한 번 제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프랑스 향수를 쉬운 예로 들겠다. 프랑스 향수는 프랑스산이기 때문에 원가의 10배로 팔린다. 똑같은 향수라도 벨기에산이면 프랑스산 향수와 같은 가격에 팔릴 수 없다. 중국의 경우, 중국 제품은 싸기 때문에 팔린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일본도 1920~1930년대에는 싸구려 제품을 판매했다. 한국은 중간 위치에 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이 부족하다. 한국은 역사적 기반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 본인이 아무 나라에게나 이러한 권고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국은 가능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공공재(public good)”라는 경제 개념을 사용하면 한국의 브랜드 가치는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공재의 공급은 일종의 공공투자를 필요로 한다.

세계경제연구원 후원회 가입안내

- 후원회원의 종류 : 법인회원, 개인회원
-
- 법인회원에 대한 서비스
연구원 주최 행사에 우선 초청
연구원 주최 행사에 5인까지 무료 참가 가능
연구원이 발간하는 모든 간행물 무료 제공
법인 회원을 위한 특별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
- 개인회원에 대한 서비스
연구원 주최 행사에 초청
행사 참가비 할인
연구원이 발간하는 일부 간행물 무료 제공
-
- 후원회비는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공제 가능
-
- 회원 가입 문의
551-3334~7(전화) 551-3339(팩스)
E-mail : igenet@igenet.com
<http://www.igenet.com>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 무역센터 2505호
전화 : 551-3334/7, FAX : 551-3339
E-mail : igenet@igenet.com
<http://www.igenet.com>